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1년 5월 2일

중국 지역별 12차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

노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 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syno@kiep.go.kr, Tel: 3460-1284)

- ▣ 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10년) 중국 중앙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는 각각 7.5%와 5%였으나, 지역별로는 이보다 높은 목표치를 책정해 모두 초과달성했음.
- ▣ 중국 중앙정부의 「제12차 5개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계획 요강」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 신형전략산업의 육성, 주민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권역 및 성/시는 중앙정부의 기초를 따르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음.
- ▣ 첫째, 경제성장의 경우, 지역별로 중앙정부의 연평균 GDP 성장률 목표치보다 높은 8~1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동부연해지역은 주로 11·5계획보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중·서부지역은 대부분 10%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서부지역 대부분은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12·5계획기간에도 경제의 양적 성장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중국 중앙정부의 목표와 함께, 진출을 추진하는 지역의 정책 및 목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 둘째, 7대 신형전략산업의 경우, 모든 지역이 경쟁적으로 12·5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은 욕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역이 3개 이상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5개 이상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지역이 전체 31개 지역 중 약 75%를 차지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지역 및 협력파트너를 선정할 때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보다는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진 지역들의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 비교할 필요가 있음.
- ▣ 셋째, 주민소득의 경우, 모든 지역이 주민소득 연평균증가율 목표를 11·5계획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장하게 될 새로운 소비분야와 농촌시장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차 례 ●●●

1. 도입
2. 지역별 11차 5개년 계획기간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 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 나. 주민소득 연평균 증가율
3. 지역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가. 경제성장
 - 나. 신흥전략산업 육성
 - 다. 삶의 질 개선
4. 요약 및 시사점

1. 도입

- 중국의 31개 성(省)급 지방정부는 2011년 1~2월 개별적으로 개최된 지방 양회에서 12차 5개년 계획 요강(이하 12·5계획)을 심의한 후, 최종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통과된 지역별 최종 12차 5개년 계획은 △ 해당 지역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 △ 11차 5개년 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 2011~15년간 시행할 지역경제, 사회발전 목표와 주요 과제의 순서로 작성됨.
- 2011년 3월 8일 기준으로 31개 성/시 중 최종 계획이 발표된 곳은 상하이시를 비롯한 21개 지역이고, 미발표 지역은 베이징시를 비롯해 9개 지역이며, 신장위구르자치구는 건의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
- 최종계획이 발표된 곳은 상하이, 톈진, 충칭, 허베이, 산둥, 지린, 헤이룽장, 저장, 푸지엔, 광둥, 하이난, 안후이, 장시, 네이멍구, 쓰촨, 산시, 칭하이, 구이저우, 시짱, 닝샤, 간쑤 등 21개 지역임.
- 최종계획 이전 단계인 건의안만 발표된 곳은 베이징, 랴오닝, 장쑤, 허난, 후난, 후베이, 산시, 광시, 윈난 등 9개 지역임.

2. 지역별 11차 5개년 계획기간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 11·5계획기간 중국 중앙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는 7.5%였으나, 지역별로는 이보다 높은 목표치를 책정했고 초과 달성했음(표 1 참고).
- 연평균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 또는 실적치를 밝히지 않은 헤이룽장성과 산시성을 제외한 29개 성/시의 11·5계획기간 연평균 GRDP 성장률 목표치 평균은 10.1%로, 중앙정부의 목표치인 7.5%보다 높았음.
- 11·5계획기간 연평균 GRDP 성장률 목표가 가장 높았던 곳은 네이멍구자치구로 13%였으며, 가장 낮았던 곳은 윈난성으로 8.5%였음.
- 또한 중국 전체의 11·5계획 실제 GRDP 성장률이 11.2%인 데 반해, 29개 성/시의 평균 GRDP 성장률은 13.2%였으며,¹⁾ 29개 성/시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음.
- 목표를 가장 많이 초과 달성한 지역은 충칭시로, 10%를 목표로 했으나 14.9%의 성장을 거둬 목표치를 4.9%포인트 초과 달성했음.
- 또한 6대 권역 중에서는 광둥성, 푸지엔성, 하이난성으로 구성된 남부에 위치한 화남지역이 목표치를 4%포인트 초과 달성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음.

표 1. 권역별, 성(省)별 11·5계획 성과 및 12·5계획 목표 비교

권역	성/시	연평균 경제성장률(%)			12·5계획 지역별 이슈
		11·5 목표치	11·5 실적치	12·5 목표치	
화북지역	베이징(北京)	9	11.4	8	인구 통제와 교통난 완화
	톈진(天津)	12	16	12	빈하이신구의 개발 및 개방 가속화
동북지역	허베이(河北)	11	11.7	8.5	환수도경제권 구축
	산둥(山東)	10	13.1	9	친환경 및 해양경제 발전
중부지역	랴오닝(遼寧)	11	14	11	동부연해발달지역과의 격차 축소
	지린(吉林)	12 이상	14.8	12 이상	도시통합 및 주변국(러시아, 북한)과의 협력
	헤이룽장(黑龍江)	n.a.	11.9	12	국유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1) 개별 성/시가 전체 중국 경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평균이며, 데이터의 중복집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계속

권역	성/시	연평균 경제성장률(%)			12·5규획 지역별 이슈
		11·5 목표치	11·5 실적치	12·5 목표치	
화 동 지 역	상하이(上海)	9 이상	11	8	4대 중심 건설과 푸둥신구의 2차 발전
	장쑤(江蘇)	10 이상	13.5	10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저장(浙江)	9	11.8	8	클러스터를 통한 발전
화 남 지 역	푸젠(福建)	9 이상	13.8	10 이상	대만, 화교와의 협력
	광둥(廣東)	9	12	8	주강삼각주지역경제통합, 질적 발전
	하이난(海南)	9	13.3	13	관광업 발전
중 부 지 역	안후이(安徽)	10 이상	13.4	10 이상	완장도시군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전
	장시(江西)	11	13.2	11 이상	난창(南昌)시를 중심으로 한 포양후(鄱陽湖) 생태경제권 발전
	허난(河南)	10	12.8	9 이상	중위안경제구(中原經濟區)를 중심으로 한 농업의 현대화, 공업화, 도시화
	후난(湖南)	10	14	10 이상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시범사업
	후베이(湖北)	10 이상	13.9	10 이상	중부굴기(中部崛起) 사업의 전략적 거점
	산시(山西)	10	n.a.	13	석탄 등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의 개선
서 부 지 역	충칭(重慶)	10	14.9	12.5	고속성장과 빈부격차해소(지니 계수 도입), 내륙개방기지건설
	네이멍구(內蒙古)	13	17.6	12 이상	에너지수송인프라 확충과 농·목축업 발전
	쓰촨(四川)	9	13.7	12	인프라 건설 가속화
	산시(陝西)	11	14.8	12 이상	인프라 건설 및 대외개방
	광시(廣西)	10	13.7	10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칭하이(青海)	10	13.1	12	광물자원의 고효율, 친환경 개발
	윈난(雲南)	8.5	11.8	10	국경지역 및 소수민족자치지역 발전, 인프라 건설
	구이저우(貴州)	10	12	12 이상	에너지기지 건설(생산, 가공)
	시짱(西藏)	12	12.4	12 이상	사회안정
	닝샤(寧夏)	10	12.7	12	이주 등을 통한 산악지대 빈민층 구제
	간쑤(甘肅)	10	11.1	12 이상	10대 전략 프로젝트(인프라, 산업기지, 에너지기지)에 1조 위안 투입
신장(新疆)	9	10.6	12	생산건설부대(兵團: 국토건설단)의 활용	
전체 평균		10.1	13.2	10.6	헤이룽장성, 산시성 제외

주: 전체 평균은 헤이룽장성과 산시성을 제외한 29개 성/시의 최소값을 산술평균했음.
 자료: 지역별 「12·5 규획강요」, 지역별 「11·5규획강요」, 지역별 「12·5 규획 건의안」, 지역별 2011년도 정부업무보고 정리

나. 주민소득 연평균 증가율

■ 11·5계획기간 동안 모든 지역이 주민소득 연평균 증가율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특히 농촌주민소득과 ning샤족자치구의 성장이 두드러짐(표 2 참고).

- 집계 가능한 23개 지역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전체 평균 목표치는 도시주민소득이 7.7%로 농촌주민소득의 6.8%보다 0.9%포인트 높았음. 그러나 실적치의 경우, 도시주민소득이 3.4%포인트 초과 달성한 데 반해, 농촌주민소득은 4.1%포인트 초과 달성해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음.
- 도시주민 1인당가처분소득의 경우, 산서성의 목표치가 12%로 가장 높았고, 권역별로는 동북지역이 평균 10.3%로 가장 높았음. 실적치의 경우 ning샤자치구가 목표치를 7.1%포인트 초과 달성했고, 권역별로는 화북지역과 서부지역이 평균 3.7%포인트 초과 달성했음.
-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의 경우 시짱자치구의 목표치가 13%로 가장 높았고, 권역별로는 화북지역이 평균 7.3%로 가장 높았음. 실적치의 경우 ning샤자치구가 목표치를 8.3%포인트 초과 달성했고, 권역별로는 중부지역이 평균 5.5%포인트 초과 달성했음.

표 2. 권역별, 성별 11·5계획 및 12·5계획의 주민소득 목표치 비교

권역	성/시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연평균 성장률(%)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연평균 성장률(%)		
		11·5 목표치	11·5 실적치	12·5 목표치	11·5 목표치	11·5 실적치	12·5 목표치
화 북 지 역	베이징	6	9.2	8	6	9	8
	톈진	10	14	10 이상	10	10.4	10 이상
	허베이	8	12.2	8.5	6	9.6	8.5
	산둥	7	10.5	10	7	8.7	10
동 북 지 역	랴오닝	9	11.4	11	8	9.3	10
	지린	11.5	12.2	12 이상	6	13.8	12 이상
	헤이룽장	n.a. (12,160)	10.9 (13,857)	12 이상 (24,400)	n.a. (4,520)	14 (6,210)	12 이상 (10,900)
화 동 지 역	상하이	안정적 성장	11.3	8	안정적 성장	10.5	8
	장쑤	n.a. (19,000)	10.2	10	n.a. (7,500)	8.2	10
	저장	6	8.2	8.5	6	8.4	9
화 남 지 역	푸지엔	7	9.5	11	6	8.3	11
	광둥	5.5	7.5	8	6	8	8
	하이난	8	13	13	6	11.9	13

표 2. 계속

권역	성/시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연평균성장률(%)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연평균성장률(%)		
		11·5 목표치	11·5 실적치	12·5 목표치	11·5 목표치	11·5 실적치	12·5 목표치
중부지역	안후이	7	13.3	10	7	14.9	10
	장시	n.a. (13,000)	12.4	11	n.a. (4,600)	12.1	11
	허난	8	9.6	9	6	10.1	9
	후난	7	8.4	10	6	8.8	10
	후베이	8	12.8	10	6	13.5	10
	산시(山西)	12	n.a. (15,640)	n.a. (30,000)	6-8	n.a. (4,730)	n.a. (9,000)
서부지역	충칭	7.9 (15,000)	11.3 (17,532)	n.a. (31,000)	8 (4,100)	13.1 (5,200)	n.a. (12,000)
	네이멍구	10	11.2	12	8	10	12
	쓰촨	5.6 (11,000)	n.a. (15,461)	n.a. (27,300)	6 (3,750)	n.a. (5,140)	n.a. (9,000)
	샨시(陝西)	8.7	13.7	14	10.3	14.9	15
	광시	8	13.9	10	5	12.7	11
	칭하이	8	11.4	10	7	12.3	12
	윈난	6	8.1	10	6	9.9	10
	구이저우	7	8.3	10 이상	5	8.3	10 이상
	시짱	7.5	12.2	7.5	13	14.8	13 이상
	닝샤	6.5	13.6	12	5	13.3	12
	간쑤	8	10.1	12	6	10.8	12
	신장	8	11	서부지역 평균수준	6.5	12.7	서부지역 평균수준
	전체평균	7.7	11.1	10.3	6.8	10.9	10.7

주: 1) 전체평균은 8개 성/시(헤이룽장, 상하이, 장쑤, 장시, 산시, 충칭, 쓰촨, 신장)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이를 제외한 23개 성/시를 대상으로 산출평균함.

2) 주민소득증가율이 발표되지 않은 성/시는 괄호 안에 소득액을 표기하는 것으로 대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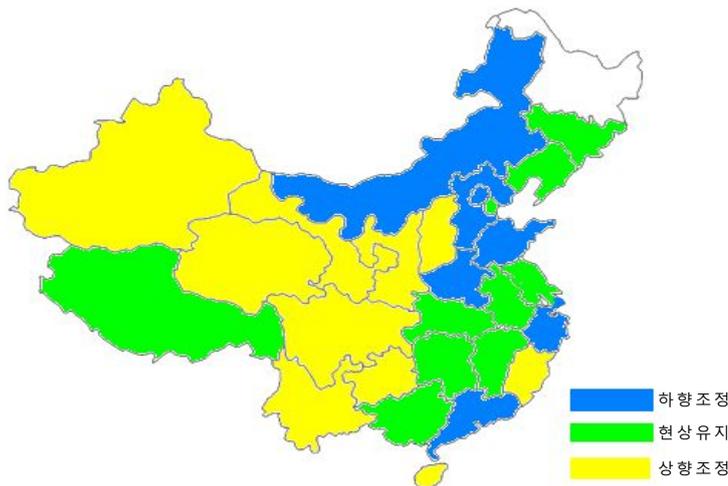
자료: 지역별 「12·5 계획강요」, 지역별 「11·5 계획강요」, 지역별 「12·5 계획 건의안」, 지역별 2011년도 정부업무보고 정리

3. 지역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중앙정부의 「12·5 계획 요강(초안)」은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과 민생보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지역 「12·5 계획」에서 경제성장률 조정, 신형전략산업육성, 주민소득증대 등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 있음.

- 헤이룽장성을 제외한 30개 성/시 중에서 12·5계획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1·5계획보다 낮추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 지역이 18개에 달해 상향 조정한 지역 수보다 많음(그림 2 참고).
-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지역은 베이징시, 허베이성, 산둥성, 상하이시, 저장성, 광둥성, 허난성, 네이멍구자치구 등 8개로, 허난성과 네이멍구자치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동부연해지역에 위치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들임. 이들 지역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데는 중앙정부의 기조를 따르려는 취지도 있겠으나, 경제구조조정의 지역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함.
- 목표치를 11·5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지역은 톈진시, 랴오닝성, 지린성, 장쑤성, 안후이성, 장시성, 후난성, 후베이성, 광시자치구, 시짱자치구 등 10개임.

그림 2. 성별 12·5계획기간 경제성장률목표치의 11·5계획 대비 변화



주: 헤이룽장성은 11·5 계획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표기하지 않음.
 자료: [표 1]의 성별 11·5계획과 12·5계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 비교를 통해 재구성.

-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지역은 푸지엔성, 하이난성, 산시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 칭하이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닝샤자치구, 간쑤성, 신장자치구 등 12개임. 이 중 푸지엔성과 하이난성을 제외한 10개 지역은 모두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아직은 경제의 빠른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이들 서부지역의 경우, 국가급 지역발전계획인 '서부대개발' 전략에서 2단계(2011~20년) 기간 중에도 고속성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2·5계획에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도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님.²⁾

2) 중국 중앙정부는 2010년 7월 개최된 서부대개발의 10년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서부지역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부와의 GDP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자평하고, 2011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도 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서부대개발 제2막 시작 동부와 격차는

- 경제성장과 관련해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내수시장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루고 있으나, [표 1]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지역 이슈에는 차이가 있음.
-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경제구조조정이나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서부지역과 같이 미발달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속성장을 중시함.
- 베이징시는 인구증가억제와 교통체증완화를 12·5계획기간의 주요 과제로 삼았고, 상하이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며, 광둥성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질적 발전 추구 의지를 밝혔음.
- 이에 반해 중부 6개 성은 중앙정부의 '중부굴기' 전략의 본격적인 시행을 기화로 고속성장을 추진할 계획이고,³⁾ 쓰촨성도 고속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서부지역 대부분의 성에서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제가 발달한 지역과의 원활한 경제교류와 산업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성/시별로 지역내 또는 지역간 경제권 형성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중부지역은 최근 국가급으로 승격된 도시군을 거점으로 한 지역발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광둥성은 기존에는 행정구역 내에 국한되어 있던 주강삼각주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범(泛)주강삼각주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나. 신흥전략산업 육성

- 중앙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7대 신흥전략산업을 강조함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관련 산업 육성계획을 경쟁적으로 12·5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음.
- 중국 중앙정부는 2010년 10월 「신흥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을 발표하고 7대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세수혜택, 투·융자 활성화 등을 약속한 바 있음.
- 7대 신흥전략산업은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 차세대 IT 기술 △ 바이오 △ 첨단장비 제조 △ 신에너지 △ 신소재 △ 그린카 관련 산업임.

축소되지 않아」 참고(<http://www.csf.kiep.go.kr/cprg>).

3) 자세한 내용은 정지현(2011),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7): 중부 6개 성」,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제11-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 이에 따라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6개 산업을 목표로 한 지역이 13개로 가장 많고, 5개 이상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지역이 전체 31개 지역 중 약 75%를 차지함.
- 베이징시, 랴오닝성 등 최종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전략산업의 하위세부업종까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허베이성이나 산둥성처럼 최종 계획에서도 전략산업의 피상적인 나열에 그칠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지역도 있음.
- 세부업종을 밝힌 지역의 경우 △ 랴오닝성은 신에너지와 신소재산업에 치중하고 있고 △ 상하이시는 첨단장비제조와 그린카산업에 치중하며 △ 안후이성은 신에너지와 그린카산업에 치중하고 △ 쓰촨성은 차세대 IT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산업에 치중하고 있음.
- 세부업종별로는 뚜렷한 선호도가 나타남.
- 7대 산업 중에서는 바이오, 신에너지와 신소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 세부업종별로는 신에너지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신소재산업은 세부업종 모두에 고른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차세대 IT 기술의 경우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⁴⁾과 신형 디스플레이 업종을 가장 선호하고, 첨단장비제조업에서는 항공기와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음.
- 그린카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를 육성할 계획임을 밝힌 지역이 상하이시, 충칭시, 안후이성에 불과함.

다. 삶의 질 개선

- 국가 12·5계획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민생안정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 고조되면서 소득증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음.
- 국가 12·5계획에서는 주민소득 연평균 성장률을 GDP 성장률과 같은 7%로 책정하였으나, 지역별로는 모두 이보다 높게 책정했음(표 2 참고).
- 집계 가능한 23개 지역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지방의 주민소득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 도시주민소득의 경우 11·5계획에서 7.7%였으나, 12·5계획에서

4) 기존의 인간 중심 정보수집에만 활용되던 인터넷 인프라를 사물 대 사물 간 영역으로 확대, 연계하여 사물 간에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상호전달하는 기술로서, 차세대 방송통신인터넷시장의 핵심인 사물지능통신(M2M)의 일환임.

는 10.3%로 2.6%포인트 상향 조정되었고 △ 농촌주민소득의 경우에도 11·5규획에서는 6.8%이던 것이 12·5규획에서는 10.7%로 3.9%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음.

- 지역별로는 8~15%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산시성은 도시주민 1인당가처분소득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14%,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15%로 정해 전체 지역 중 최고치를 기록했음.
- 권역별로는 도시주민소득의 경우 동북지역의 평균 목표치가 11.7%로 가장 높고, 농촌주민 소득의 경우 서부지역의 평균 목표치가 11.9%로 가장 높았음.
- 모든 지역에서 12·5규획기간 주민소득 목표치를 11·5규획기간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베이징, 허베이, 광둥성 등은 GRDP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고, 주민소득 성장률 목표치를 높임으로써 경제성장률과 주민소득증대가 비슷한 속도를 맞추도록 하고 있음.
- 산둥, 저장, 푸지엔, 산시성 등은 GRDP 성장률보다 주민소득 성장률을 더 높게 책정함.
- 특히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두드러짐.
- 이는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농촌주민의 소비능력을 향상시켜 내수시장 확대에 활용할 의도로 볼 수 있음.
- 또한 주민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별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음.
- 충칭시는 중국 최초로 지니계수를 규획에 포함시키면서 기존의 0.42에서 0.35까지 낮출 계획임.
- 광둥시는 ‘행복한 광둥(幸福廣東)’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주민행복지수에 기반한 공무원 평가체계를 개발 중이며, 충칭시와 산둥성 등도 ‘행복’을 강조함.

4. 요약 및 시사점

- 중국 중앙정부의 12·5규획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권역 및 성/시의 12·5규획 내용도 중앙정부의 기초를 전체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실현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12·5규획에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산업구조조정, 내수시장 확대, 지역균형발전, 도시화, 신흥전략산업의 육성, 민생안정, 대외개방확대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
- 그러나 현지 환경을 고려해서라기보다 중앙정부의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포함된 계획도 있으므로 보다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중·서부지역은 동부 연해지역에서 이전하려는 기업을 유치할 것임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네이멍구자치구처럼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있음.⁵⁾
- 경제성장의 경우, 중국 연평균 GDP 성장률 목표치가 7%인 데 반해 지역별로는 8~13%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함께 지역별 정부 정책 및 목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경제가 발달한 동부연해지역은 주로 11·5규획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목표치를 책정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를 정하고 있는 반면, 중·서부지역은 대부분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12·5규획기간에도 여전히 ‘경제의 양적 성장’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
- 특히 서부지역은 교통·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고속경제성장에 치중하고 있음.
- 지역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률은 해당 지역 관료의 인사고과와도 직결되고, 서부지역과 같이 경제의 양적성장이 여전히 요구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목표치 책정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책정범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중국 중앙정부가 정하는 국가차원의 목표와 함께, 진출을 추진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중국 중앙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7대 신흥전략산업의 경우, 모든 지역이 경쟁적으로 12·5규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은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함.
- 이들 전략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실패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해당 산업의 하위 업종으로 세분화시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지 않고 무작정 자본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전국적인 중복투자과 과잉생산 등의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도 있음.

5) 구체적인 내용은 임민경, 김부용(2011), 「주요 성(省)별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6): 네이멍구 자치구(內蒙古自治區)」,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제11-0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 따라서 투자지역 및 협력파트너를 찾을 때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보다는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인 지역들의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 비교할 필요가 있음.
- **민생안정책의 일환인 소득증대의 경우, 모든 지역이 국가 기조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소비영역과 농촌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모든 지역에서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치를 11·5계획기간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대부분 12·5계획기간 동안 주민소득을 2010년 수준의 2배로 늘릴 계획임.
- 특히 농촌주민소득 증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농촌의 소비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KIEP**